



■ 토 론 3.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귀촌·귀농인의 역할 토론문

정 태 하

논산 탐정호권역
추진위원장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귀촌·귀농인의 역할 토론문

정태하(논산 탐정호권역 위원장)

1. 전제

- 이론적 접근이 아닌 농촌에서 10여년의 경험을 토대한 글로 보편성보다는 주관성에 바탕한 현장성이 강한 글.
-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먹거리 생산에 종사하는 필자의 입장이 강한 글.
- 귀농, 귀촌, 귀향자의 입장에서 본 농촌의 현재상황을 토대로 작성한 글.
- 유년시절 살았던 농촌과 귀향이후의 농촌마을의 변화를 토대로 작성한 글.
- 1차 산업에 귀농귀촌자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들에 대한 우선 지원을 정책을 펴면 하는 바램이 깔린 글.
- 이글이 농촌 정책과 귀농귀촌의 정책에서 하나의 현장에 목소리 여겨 참고하면 좋겠다는 바램

2. 서론

귀향이후 10여년의 농촌생활을 하면서 귀농당시 품었던 "물질적인 적당함과 정신적인 풍요"란 소망은 많은 부분 퇴색되었다. 물질적인 적당함을 유지하기도 녹록하지 않음은 물론, 정신적인 풍요는 더더욱 말 그대로 소망에 그칠 판이다. 귀농초기의 농사에 대한 열정도 지치고, 농촌의 현실에 대한 마음도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에 이를 지경이다. 이는 물질적으로 빈곤한 농촌현실 보다는 지금의 농촌 현실이 유년의 농촌과 너무도 다르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파괴된 농촌 공동체의 현실이 현재의 농촌이다. 경제적 공동체, 문화적공동체, 정치적공동체, 이념적 공동체가 붕괴되었다. 즉 생활공동체로서의 농촌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다.

사회적 경제 실현이란 붕괴된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복원이 아니고 새로운 농촌 공동체의 창조라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 실현 과정이 농촌공동체의 건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고령화된 농촌 주민의 힘만으로도, 행정의 힘만으로도, 흔히 말하는 새로운 피로 불리는 귀농귀촌자만으로도 힘들다.

여기서는 붕괴된 농촌공동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귀농귀촌자를 살피고,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귀농귀촌자의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것이다.

3. 본론

1) 농촌 현실

- 뿌리 깊은 소외 :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 발전과 경제적 향상에서 배척되고 소외되었다는 의식이 강하다. 아직도 마지못해서 사는 농촌 주민이 대다수고 나이 들어 떠날 수 없어서 사는 현실이 농촌이다.
- 내면의 열등의식 :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뻥 없고, 능력 없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 배타성 : 이러한 소외와 열등의식은 외지인에 대한, 귀농귀촌자에 대한 배타성과 거리두기로 나타남. 자신의 약점이나 열등의식을 숨기기 위한 거리두기. 이러한 배타성은 때로는 공격성으로 표출되어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 큰소리와 어기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농촌주민들,
- 자본주의 편입된 농촌 : 농촌도 삶의 근간이 자본주의에 편입되면서 농촌 공동체의 문화가 퇴색되어짐. 연장자, 어른, 공동체의 관습적 질서에 의해 유지 운영되던 농촌이 자본의 논리로 공동체의 근간이 바뀌어감.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의 농촌 공동체의 정체성이 파괴됨. 그렇다고 새로운 농촌공동체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함. 정체성의 혼란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문화적 정신적 혼돈상태.
- 농촌공동체 붕괴 :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동력상실. 노동력을 근간으로 한 공동체 상실. 문화적 공통성 상실. 농촌 내 빈부격차로 인한 경제적 동질감 상실. 이웃의 존재가치는 점점 줄어듦.
- 여전한 사회의 변방 : 몇몇 성공사례는 존재하나 여전히 농촌은 사회발전의 열매를 나누는 데 제외되고 있음.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혜택에서 멀리 있음.
- 이중적인 공동체 : 뿌리가 깊어 내적으로는 껍데기만 남은 공동체임에도 외적으로는 소속성을 강조함. 귀농귀촌자에게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쉽게 허락하지 않음. 어쩌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

*** 대안 : 농촌현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농촌 공동체의 유형을 확립하고 현대적 사회에서 농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야함. 나아가 이러한 공동체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인정하고, 농촌 공동체 구성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함. 농촌정책은 몇 푼의 지원보다도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야 함. 그리고 귀농귀촌자는 농촌의 가치를 인정한 자로서 원주민들에게 농촌의 가치에 대해, 농민으로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 자각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귀농귀촌자가 원주민들과 더불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음.

2) 귀농자 형태

- 흙에 살리라 :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귀농자. 원주민과 다를 바 없는 농촌생활을 함. 쉽게 원주민화 됨.
- 흙 위에 살리라 :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승부함. 농산물 가공 등 고부가치산업 창출, 농촌

문화산업, 농촌 서비스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함. 원주민과 괴리될 가능성 농후함.

- 흙과도 살리라 : 도시 퇴직자 형. 전원생활과 휴양이 목적. 텃밭가꾸기, 유기농, 친환경 먹거리 중요성 설파함. 원주민과 갈등 소지 적음.
- 경관에 살리라 : 도시 출퇴근형. 농업과 관계없는 주민. 농촌의 당면 현안에 멀리 있음. 위화감 가능성 있음.

*** 귀농귀촌의 긍정적 의미 : 어떠한 형태이든 유의미함. 뿌리 깊은 배타적 농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 새로운 농촌의 피로써 활력을 담당함. 새로운 농촌의 정체성 성립에 한 주체가 될 수 있음.

3) 사회적 경제 실현

- 사회적 경제란 : 크게 경제 민주화로 이해함.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파생시킨 경제의 집중화 해소. 일자리, 부의 사회적 분배 등이 실천적 사항.
- 농촌에서의 사회적 경제란 : 농촌공동체의 근간을 재정립하고 만드는 과정이라 이해됨. 전통적인 노동, 문화, 인간관계의 농촌공동체로는 공동체 유지가 어렵고 경제적 공동체 개념을 강화하여 농촌공동체가 유지 발전될 수 있다고 봄.
- 농촌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 : 소농과 빈농의 농업 외 소득 창출. 노약자나 독거노인의 소득 창출과 여가 노동의 권리 확보. 농촌관광 서비스업, 농식품 가공 노동자, 농촌 문화예술 서비스, 텃밭을 통한 먹거리 생산의 잔여 분 판매 등

*** 사회적 경제 실현의 의미 : 경제적 개념에 바탕한 농촌공동체의 강화가 이루어 질수 있음.

4) 귀농자의 역할

-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 기존의 농촌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 마련.
- 농업, 농민 자존감 고취 : 평생을 농민으로 살아온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음.
- 농촌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촌에서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함.(시설채소를 통한 연 5-6억 매출, 젊은 농업인 중심의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농촌관광 서비스 산업, 아이디어 상품개발 등)
-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일꾼 : 도시와 소통 창구, 홍보기획 등을 통한 농촌 알리기 등
- 새로운 농촌공동체 확립 : 귀농자에 의한 기존의 공동체 틀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농촌공동체의 의미가 생겨날 수 있음. 즉 권위적이고, 위계질서가 확실한 공동체에서 젊은 농촌리더는 기존의 "마을 이장"이란 리더에서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전문가형 리더"로 변화 시킴.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 주체적, 긍정적 농촌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음.

*** 귀농자와 농촌 공동체의 거리 좁히기 : 원주민의 열린 자세와 귀농귀촌자의 원주민의 인정을 통하여 소통이 이루어질 때 물과 기름처럼 이질감이 없어짐. 이럴 때 퇴보하는, 무너지는 농촌에 새로운 농촌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음.

4. 결론

농촌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은 농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전히 존재하는 피해의식, 열등의식에서 기인한 배타성을 해결해야 한다. 방법은 농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의 자긍심을 높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그 정체성을 인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경제적 보조나 정치적 구호로 해결 되지 않는다.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한 농촌의 현실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 분석이 귀농귀촌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그들은 소통을 통하여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원주민을 계몽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 있다. 그 봉사는 도시와 상생의 길을 열고, 농촌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전하는 리더의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귀농귀촌자는 농촌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에서 주체이자 리더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실현이 농촌공동체 복원의 길과 다르지 않은바 귀농귀촌자는 농촌 공동체의 복원과 새로운 농촌공동체의 확립에 핵심이다.

앞으로 귀농귀촌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한다. 바램이 있다면 귀농귀촌자는 농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했으면 좋겠고,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귀농귀촌자는 많은데 농촌 공동체는 죽어버린 그런 농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기적이고, 단절된 도시의 삶이 농촌에서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